

# 고흥, 중학생 18명 대상 '싱가포르 해외문화 체험' 실시

### 고흥 스마트팜혁신밸리, 에너지 효율 높여 미래농업 실현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단체사진

/고흥군 제공

고흥군은 관내 중학생 18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싱가포르 일원에서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청소년들이 세계적인 교육·문화 환경을 직접 경험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일본 문화 체험에 이어 올해는 아시아의 교육·경제 중심지인 싱가포르를 방문해 국제적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참가 학생들은 관내 중학교 재학생 가운데 학교장 추천을 통해 선발됐으며, 이번 체험을 통해 세계적인 교육·문화 환경을 직접 경험하고 국제적 감각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일정으로 학생들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US) 캠퍼스 투어와 재학생 설명 프로그램에 참여해 해외 대학 문화를 체험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강종수 기자

보성군, 치매 조기 예측 검사로 선제 대응 강화

해남군 '병풀' 고부가가치 신소득 작물로 육성

보성군은 최근 보성군노인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 35명을 대상으로 조선대학교 치매코호트연구단과 함께 치매 조기 예측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8일 보성군과 조선대학교 치매코호트연구단 간 체결한 업무 협약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검사 비용 전액을 무료로 지원해 어르신들의 검사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 부담을 낮췄다. 검사 항목은 혈액검사와 유전자 검사, 뇌파 검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치매 발생 가능성을 보다 조기에 예측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검사 체계를 갖췄다. 또한,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추가 정밀 진단검사를 무료로 연계 지원할 예정이며, 조기 발견 이후 상담·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치매 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추가 검사를 추진해 지역 내 치매 예방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종수 기자

해남군이 '병풀'을 고부가가치 신소득 작물로 육성한다.

해남군은 2022년 0.1ha 규모의 병풀 시범 재배를 시작한 이후, 올해까지 재배 면적을 0.23ha까지 확대했다. 참여 농가도 2개소로 늘어나면서 병풀 생산량은 건조 기준 연간 200kg에서 900kg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배드 재배 방식을 도입·운영함으로써, 품질 균일화와 생산성 향상에 성과를 내고 있다.

병풀은 미나리과 다년생 초본식물로, 마데카소사이드와 아시아티코사이드 등의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 재생과 진정, 항염·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화장품 원료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부가가치 작물로 주목받고 있다. 해남산 병풀은 화장품 기업 28의 '해남404 펩타시카' 제품에 활용되며 지역 농산물 가치를 높이고 있다. /윤보현 기자

진도군, 군민건강 실태조사 본격 시작

장흥군, 월암 김선보 작가 작품 70여 점 기증 받아

진도군은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맞춤형 보건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2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진행한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질병관리청과 보건소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통계 조사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지역 주민의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의료 이용 등을 파악하여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며,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28개 표본 가구의 19세 이상 성인 87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문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건강 실태를 1대1 면접 조사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이가영 기자

장흥군은 최근 군청 부근수실에 서 월암(月庵) 김선보 서예가의 작품 70여 점에 대한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지역 예술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으며, 장흥읍 향양리 출신인 김선보 작가가 평생 정진해온 예술적 성과를 고향의 공공 자산으로 환원하고 군민들과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월암 김선보 작가는 1937년 장흥에서 태어나 장흥군과 영광군청에서 공직 생활을 한 정통 행정이 출신 서예가다. 공직 생활 중에도 붓을 놓지 않았던 그는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전라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 광주광역시미술대전 초대작가 등을 역임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해왔다. 기탁된 작품들은 향후 군민들의 문화 향유와 지역 예술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백두연 기자

# 완도해경, 승조원 지원시설 '청해관' 준공으로 복지·안전 강화



합정 승조원 지원시설 준공식 사진

/완도해경 정척 홍보실 제공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태환)는 최근 완도해경 전용부두 내 합정 승조원 지원 시설에서 "합정 승조원 지원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완도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한 해양경찰관들과 완도군수 등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원시설 준공을 축하했으며, 사업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합정 승조원 지원시설은 장기간 해상 근무와 반복되는 긴급출동으로 피로도가 높은 합정 근무 경찰관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시설은 본관동과 참고동으로 구성됐으며, 승조원 휴게공간과 교육·훈련시설, 체력단련 공간, 장비보관시설 등을 갖춰 현장 근무 경찰관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재충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또한 합정 운영과 연계한 동선을 반

영해 현장 대응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시설 조성은 단순한 복지공간 확충을 넘어 현장 중심의 근무환경 개선과 조직 사기 진작, 안정적인 해양경비 체계 구축에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태환 완도해양경찰서장은 "합정 승조원 지원시설은 현장 최일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직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복지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합정 승조원 지원시설은 장기간 해상근무와 반복 출동으로 누적된 피로를 줄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됐다. 휴게공간과 교육·훈련시설, 체력단련실 등을 갖춰 현장 대응력 향상과 해양경비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이문수 기자

